

한부모의 성별 및 가구구성별 경제적 여건의 차이*

Differences in Economic Conditions of Single-Parent Families

: Focused on the Differences between Single-Mother and Single-Father Families
and their Household Composition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배다영**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진미정***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Researcher : Bae, Da-Young

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

Associate Professor : Chin, Mee-Ju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how the economic conditions and needs of single-parent families are different between single-mother and single-father families, and also how they are dependent on household composition. The data for this study were drawn from the 1st Korea Welfare Panel Study and analyzed by frequencies, means, χ^2 , t-test, F-test, and logistic regression with the STATA 9.1 program.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Single-parent families are more likely to live in a three-generation household than married couple families. (2) The composition of a three-generation household of single-parent families is affected by sex, age, education, type of marital disruption, the type of employment of single parents and the age of the last-born child. (3) The income-to-needs ratio i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depending on the sex of the single parents and their household composition. However, material hardship is significantly low in three-generation household single-parent families. (4)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three-generation single-parent families and independent single-parent families in income sources: The ratio of public transfer to total incomes is higher in three-generation households than independent households, while the ratio of private transfer to total incomes is higher in independent households.

▲주요어(Key Words) : 한부모 가족의 가구구성(household composition of single-parent families),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여건(economic conditions of single-parent families), 여성 한부모 가족(single mother family), 남성 한부모 가족(single father family)

* 본 연구는 제 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 내용 중 일부이며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의 일부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
되었음.

** 주 저 자 : 배다영 (E-mail : dbae@kihasa.re.kr)

*** 교신저자 : 진미정 (E-mail : mchin@snu.ac.kr)

I. 문제제기

이혼과 별거, 미혼출산 현상으로 전체 인구에서 한부모 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이들에 대한 학문적,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부모 가족과 관련된 많은 연구와 통계에서 한부모 가족의 가구구성에 대한 관심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지금까지 한부모 가족이 한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단독가구'라는 단일한 유형의 가족으로 인식되어왔기 때문이다. 많은 한부모 가족이 배우자 부재-특히 남성 생계부양자의 부재-라는 가족 구조적 특성으로 인한 자원의 부족을 경험하고, 빈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문제의식은 대다수의 연구에서 한부모가 배우자 이외 다른 성인 가구원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한 채 단독가구를 구성한 여성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여건에만 관심을 집중시켰다.

반면 서구 선행연구에서는 한부모 가족 내 다양성에 대한 관심과 함께 가구구성이 중요한 연구 주제로 다뤄져왔다.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에 따라 가족이 동원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의 양과 종류(Angel & Tienda, 1982; Brown & Lichter, 2004; Snyder et al., 2006), 자녀양육이나 자녀발달(DeLeire & Kalil, 2002; Dunifon & Kowaleski-Jones, 2007; Kalil et al., 2001; Michalopoulos & Robins, 2002), 취업(Cohen, 2002; Hao & Brinton, 1997; Tienda & Glass, 1995), 가족원 간 관계의 질(Hilton & Kopera-Frye, 2007; Kalil et al., 1998)과 같이 생활 전반에서 경험하는 문제의 유형과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적 여건을 살펴본 많은 연구들은 한부모 가족이 다른 성인 가구원을 포함한 확대가구를 구성했을 때 소득수준이 증가하고 빈곤율은 감소한다는 결과를 제시하며 확대가구구성이 경제적 여건 개선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일종의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언급했다.

이러한 주장이 한국 사회의 한부모 가족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논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한부모 가족의 가구구성과 그에 따른 경제적 여건을 함께 살펴보는 국내 선행연구의 부재로 한부모 가족이 선택적으로 확대가구를 구성할 수 있는지의 논쟁의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국내 연구들은 단독가구를 구성한 한부모가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 형제자매, 가까운 친척 및 친구의 지원이나(권소영·옥선화, 2005; 김경신·김오남, 1997; 박현주·한경혜, 2006; 옥선화 등, 2004; 옥선화·이재림, 2001; 정현숙, 1993; 조성연, 2003; 최해경, 1997; 현은민 등, 2006), 취업(옥선화·성미애, 2004; 이성림, 2004) 복지수급(변화순 등, 2001) 등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해나가는지 연구해왔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한부모는 '여성' 한부모로 제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여성 한부모가 한부모의 약 80%를 차지하고(통계청, 2010),

한부모 가족으로의 전이기에 남성 한부모보다 급격한 소득감소를 경험하면서 빈곤에 보다 쉽게 노출되기 때문이다(Weitzman, 1985).

그러나 한부모 가족을 '단독가구를 구성한 여성 한부모 가족'으로 제한할 경우 몇 가지 중요한 연구 주제를 간과할 수 있다. 첫째, 앞서 언급한 바처럼 한부모가 자녀 이외에도 자신의 부모나 형제자매, 그 외 친척, 혹은 혼인 관계가 아닌 파트너 등 다른 가구원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가족의 세대와 동거 가구원 구성을 살펴보는 것은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오랜 관심사임에도 불구하고 한부모 가족은 배우자 부재라는 구조적인 특성만이 강조된 채 이러한 관심으로부터 벗어나 있었다. 단적인 예로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인구주택총조사는 양부모 가족이 자녀 이외에 부모 세대나 형제자매와 함께 거주하는지를 구분하여 가구 수를 제시하고 있으나 한부모 가족은 단독가구 유형으로만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여성 한부모뿐만 아니라 남성 한부모의 경제적 여건 역시 중요한 사회적 문제임을 놓칠 수 있다. 여성 한부모 가족이 빈곤과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이라는 복합적인 문제 위에 놓여있는 것은 사실이나 남성 한부모 역시 빈곤 문제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남성 한부모 가족의 소득수준이 양부모 가족의 약 48%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오승환, 2001)과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큰 당면 문제로 언급한다는 연구결과(김미숙 등, 2000)가 이를 뒷받침한다. 뿐만 아니라 2005년에서 2010년 사이 여성 한부모 가족이 15.1% 증가한 반면 남성 한부모 가족이 21.1% 증가했다는 사실(통계청, 2010)은 남성 한부모 가족의 수적 증가와 더불어 더욱 많은 관심이 이들에게 필요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한부모의 가구구성에 따라 가족 자원의 구성과 이를 동원하는 전략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간과할 수 있다. 가족의 생활 여건은 가구구성원 중 성인이 차지하는 비율, 경제활동 및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비율 등에 따라 변화한다. 만약 한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다른 성인 가구원이 경제활동이나 사회보험 등을 통해 총가구소득에 기여한다면, 그 중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나 사적 및 공적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단독가구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또한 함께 거주하는 구성원이 취업을 했다면 한부모는 자녀양육에 전념하여 자녀양육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반면, 단독가구에서는 반대로 일을 하는 동안 자녀를 맡기기 위해 자녀양육비 지출을 증가시키고 취업 소득을 통해 이를 상쇄하는 형태로 가계를 꾸려나갈 수 있다. 즉 한부모가 누구와 함께 하나의 생활단위로 살고 있는가에 따라 소득과 지출 구성, 자원 배치에서 매우 다른 전략을 취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차이를 살펴보는 것은 물질적인 자원의 부족을 경험하기 쉬운 한부모 가족의 생활 여건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연구는 한부모 가족이 한부모의 성별 및 가구구성별로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한부모의 부모 세대와의 동거를 통해 3세대 가구를 구성한 여성 한부모와 남성 한부모의 경제적 여건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부모 가족을 바라보는 단선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한부모 가족의 다양성에 주목하도록 논의를 확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인 한부모 가족의 특징이 무엇인지,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한부모 가족이 어떤 전략을 선택 해 나가는지 파악함으로써 한부모 가족의 빈곤 및 생활실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한부모를 단일 집단으로 취급하지 않아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고자 한다. 나아가 한부모 가족과 관련된 현행 법안이 한부모 가족을 단독가구로 한정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한계점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한다. 사회의 정책적 지원에서 개인이 아닌 가족이 점점 중요한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부모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구성원 전체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과 활용기대를 토대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한부모와 양부모 가족의 3세대 가구구성 출현율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한부모의 성별 및 가구구성별 사회인구학적, 가족변인의 특성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 <연구문제 3> 한부모의 3세대 가구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가족변인 특성은 무엇인가?
- <연구문제 4> 한부모의 성별 및 가구구성에 따라 가구의 경제적 여건은 어떠한가?

II. 선행연구 고찰

1. 한부모 가족의 가구구성 유형 및 출현율

한부모 가족의 가구구성을 다루는 연구들은 한부모와 미성년 자녀 이외 동거 성인 가구원 유무에 따라 크게 단독가구와 확대가구로 구분하거나, 혹은 한부모와 동거 성인 가구원의 관계에 따라 한부모의 부모, 혼인관계가 아닌 파트너, 형제자매, 그 외 다른 친족 등을 비롯한 가구원과 동거하는 경우로 세분화한다(Bumpass & Raley, 1995). 이들 연구는 한부모 가족이 양부모 가족보다 확대가구를 구성하는 비율이 높고, 다양한 확대가구 유형 중에서도 부모와의 동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86년도 현 인구조사(Current Population Survey: CPS) 자료를 분석한 Winkler(1993)에 따르면 전체 한부모 어머니 중 단독가구가 71.5%, 확대가구가 28.5%를 차지했다. 확대가

구 중에는 부모 세대와의 동거가 18.9%, 남성 파트너와의 동거 8.1%, 친족관계가 아닌 타인과의 동거가 1.6%를 차지했다. 1990년 소득 및 프로그램 참여조사(Survey of Income and Program Participation: SIPP)를 분석한 London(2000b)의 연구에서는 단독가구가 62%, 확대가구가 38%로 확대가구 비율이 Winkler의 연구보다 다소 높았다. 확대가구에서는 부모 동거 비율이 16%로 남성 파트너나 그 외 다른 성인 가구원과의 동거 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위의 두 연구는 확대가구를 구성하는 한부모 중에는 부모와의 동거를 선택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1992년도의 CPS를 분석한 Bianchi(1995)에 따르면 확대가구를 구성한 한부모 어머니는 전체 한부모 어머니의 39.8%, 한부모 아버지는 56.7%로 나타났다. 반면 양부모 가족 중 확대가구를 구성한 경우는 17.2%에 불과했다. 한부모 어머니의 확대가구구성을 결혼해체 원인에 따라 살펴보면, 별거를 경험한 어머니의 33.0%, 이혼 38.1%, 미혼 44.9%가 자녀 이외 다른 성인 가구원이 동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한부모 가족이 양부모 가족보다, 그리고 한부모 아버지가 한부모 어머니보다 확대가구를 형성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별거나 이혼을 경험한 한부모 어머니보다 미혼 자녀 출산으로 한부모가 된 어머니들의 확대가구 비율이 높다.

Bumpass와 Lu(2000)는 한부모 가족 자녀의 75%, 양부모 가족 자녀의 20%가 16세가 되기 전 일정 시기를 어머니의 남성 파트너나 조부모와 함께 살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즉 양부모 가족과 비교했을 때 한부모 가족이 확대가구를 형성하거나 가구구성 변화를 경험할 비율이 훨씬 높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미국 선행연구들은 한부모 가족 내 가구구성 다양성에 주목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연구 결과와 한국 사회의 한부모 가족 실정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Bianchi(1995)를 비롯한 다수의 연구에서 미혼 출산을 통해 한부모가 된 젊은 어머니들의 가구구성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미국의 경우 미혼 한부모 어머니들이 전체 한부모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45%로 매우 높고(U.S. Census Bureau, 2008) 이들의 경제적 여건이 가장 취약하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 한부모 가족 중 미혼 한부모 비율은 13.7%로 비교적 낮다. 또한 확대가구구성 유형에서도 미국의 경우 부모세대 동거 다음으로 남성 파트너와의 동거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 역시 우리나라 한부모 가족의 가구구성과는 다를 수 있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는 양부모 가족의 확대가구구성 비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2005년 자료에 따르면 부부-자녀로만 구성된 단독가구 89.6%, 부부-자녀-자녀의 조부모로 구성된 3세대 가구와 부부-자녀-부부의 형제자매로 구성된 2세대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0.4%이다. 그러나 한부모 가족

은 한부모-자녀로 구성된 단독가구 수만 제시되기 때문에 양부모와 가구구성 비율을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한부모 가족의 가구구성 유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연구하는 것은 한부모 가족의 다양성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생활실태 파악과 변화 방향 예측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 사회 한부모 가족의 확대가구 비율이 양부모 가족보다 높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한부모의 성별에 따라서는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전국적 대표성을 갖는 자료를 통한 분석이 필요하다.

2. 한부모의 가구구성과 사회인구학적·가족변인 특성

1) 확대가구구성 및 사회인구학적·가족변인 특성

London(2000a)에 따르면 남성 파트너와 동거하는 확대가구 한부모 어머니들이 단독가구로 살아가는 한부모 어머니들보다 연령이 낮고, 혼인 경험이 있고, 교육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세대와 동거하는 확대가구 한부모 어머니들은 단독가구 한부모 어머니보다 연령이 낮고 미취학 자녀수가 적었다. 또 다른 연구(London, 2000b)에서는 이혼, 별거, 사별을 경험한 한부모 어머니 보다 미혼 한부모 어머니일수록, 취업에 어려움을 갖는 한부모 어머니일수록 확대가구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 한부모 어머니는 특히 부모 세대와의 동거 비율이 높았는데, 이것은 이들이 결혼을 경험한 한부모 어머니들보다 상당히 어리고 아직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Tienda와 Angel(1982)의 연구는 확대가구를 '한부모와 자녀를 제외한 추가 성인 가구원이 있는 경우'로 정의하고, 양부모 어머니와 한부모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요인 중 어떤 요인이 확대가구 형성과 관련이 있는지를 탐색했다. 그 결과 양부모 어머니보다 한부모 어머니가 확대가구를 구성하는 확률이 높았고, 한부모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확대가구를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부모 어머니의 근로 형태가 안정적인수록 확대가구 보다 단독가구를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구성과 자녀양육 유형의 관계를 본 Hogan 등(1990)의 연구는 양부모 어머니보다 한부모 어머니가, 그리고 백인 한부모 어머니보다 흑인 한부모 어머니가 확대가구를 구성하는 비율이 높음을 발견했다. 확대가구 유형 중에는 한부모 어머니의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흑인 한부모 어머니의 약 45%, 백인 한부모 어머니의 약 20%가 이에 해당했다. 또한 이들의 1991년 연구에서는 한부모 어머니 중에서도 사별이나 이혼을 경험한 경우보다 미혼일 때 확대가구 비율이 높았고, 한부모 어머니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모 세대와 동거하는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한부모 어머니 중에서도

연령, 교육수준,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근로형태가 불안정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느낄수록, 또한 사별이나 이혼보다 미혼 자녀 출산으로 한부모가 되었을 경우 확대가구를 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부모 가족 연구가 한부모 어머니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한부모 아버지의 가구구성에 관련된 사회인구학적, 가족관련 요인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일부 연구에서는 한부모 아버지의 확대가구구성 비율이 한부모 어머니 보다 높고(조영희, 2004; Bianchi, 1995), 부모 세대와 접촉 빈도도 높으며, 도구적 지원 역시 더 많이 받는다는 결과(Hilton & Kopera-Frye, 2007)가 나타난다. 그러나 반대로 한부모 아버지의 확대가구 비율이 한부모 어머니보다 낮고(Eggebeen et al., 1996), 이혼 및 재혼 과정에서 한부모 아버지와 확대가족의 관계가 특히 취약하다는 결과(White, 1992, 1994)가 혼재되어 발견되기 때문에 한부모 아버지의 가구구성과 사회인구학적, 가족변인 특성을 탐색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2) 확대가구구성을 설명하는 가족적응전략 관점

한부모는 양부모보다 경제적 빈곤을 경험하기 쉽다. 또한 교육수준 및 근로유형은 개인이 획득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한부모 중에서도 교육수준이 낮고, 전일제가 아닌 시간제로 일하는 한부모들은 경제적으로 불안정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 한부모 어머니 중에서도 사별을 경험한 어머니들의 경제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윤홍식, 2004; Amato, 1987; Garfinkel & McLanahan, 1986; Lino, 1994에서 재인용) 미혼 한부모 어머니들이 가장 낮다는 연구결과(Snyder et al., 2006)는 미혼 한부모 어머니의 경제적 여건이 가장 열악함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한부모의 경제적 여건과 가구구성의 관계를 연결해보면 미혼 한부모와 같이 경제적 어려움에 노출될 위험 요인을 가진 한부모의 확대가구 구성 비율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많은 선행연구들은 경제적 취약성을 가진 어머니들이 확대가구를 구성하는 경향을 가족적응전략(family adaptive strategy)의 관점에서 해석한다. 이 관점은 확대가구구성이 한부모 가족의 취약한 경제적, 비경제적 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자발적인 선택이나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가족은 외부의 제한요인 및 기회구조에 반응하는 능동적 참여자이고 가구구성원의 경제적 상황을 향상하기 위해 단기적, 장기적 행동을 계획할 수 있다(Moen & Wethington, 1992). 가족이 자립능력이나 자산과 같은 경제적 여건에서 변화를 경험할 때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경제적, 정서적, 인적 자원이 이동될 수 있으며, 그 중 부모 세대와의 동거를 통해 자원을 축적하는 것은 대표적인 전략의 하나로 이해되어 왔다(Angel & Tienda, 1982; Hogan et al., 1990; Moen & Wethington, 1992; Stack, 1974).

그 이유는 확대가구를 구성함으로써 주거와 자녀양육에 대

한 책임을 가구원 간에 분담할 수 있고,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Brown & Lichter, 2004). 또한 가족 관계망을 통해 보다 나은 경제적, 사회적 자원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확장된 관계망과 지원 체계를 동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Bumpass & Raley, 1995; Tienda & Angel, 1982). 실제로 가구구성과 한부모의 취업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확대가구를 구성할 때 한부모 어머니의 취업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여준다(Cohen, 2002; Figueroa & Melendez, 1993; Hao & Brinton, 1997; Parish et al., 1991; Tienda & Glass, 1995).

국내 한부모 가족의 가구구성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족적응 전략을 채택할 수 있는지를 논하기는 어렵다. 이는 관련 연구의 부족 이외에도, 단독가구가 규범적인 가족 구조로 인식되는 서구에서 확대가구를 구성하는 것은 가족원의 자발적 선택이자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한국은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 규범적인 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대 구성을 자원으로 해석하는 가족적응전략 관점이 국내 한부모 가족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확대가구 한부모와 단독가구 한부모의 사회인구학적, 가족변인 특성, 가구의 경제적 여건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확대가구원이 한부모에게 지원 제공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볼 수 있다. 이는 확대가구구성을 가족적응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하나의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3. 확대가구구성 및 경제적 여건

1) 확대가구구성과 소득수준 및 소득구성

가구구성과 소득수준을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확대가구 한부모 가족의 가구 총소득이 독립가구 보다 높다. 이것은 동거성인 가구원의 소득이 가구 소득에 합해지기 때문이다(Bumpass & Raley, 1995; Snyder et al., 2006).

한부모 어머니의 가구구성을 단독가구, 부모 세대와의 동거, 남성 파트너와 동거, 다른 성인 가구원과의 동거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경제적 자원을 비교한 Folk(1996)의 연구는 단독가구를 구성한 여성 한부모가 개인 근로소득은 가장 높았으나, 가구 총소득은 남성 파트너나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한부모 어머니가 높다는 것을 밝혀냈다. 특히 남성 파트너와 동거하는 한부모 어머니의 가구 총소득은 단독가구 한부모 어머니의 약 두 배에 달했다. 양부모 가족과 한부모 가족에서 확대가구구성원의 소득 기여 정도를 비교한 Angel과 Tienda(1982)는 한부모 어머니 가족 성인 동거원의 소득기여가 양부모 가족 동거원보다 훨씬 높고 이들이 한부모 가구의 경제적 여건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는 것을 언급했다.

Winkler(1993)는 한부모 어머니의 가구구성을 단독가구,

남성 파트너, 한부모 어머니의 어머니, 한부모 어머니의 양부모와 동거하는 네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각 유형의 소득수준을 비교했다. 그 결과 소득수준이 가장 낮았던 단독가구의 소득은 가장 높은 소득수준을 보인 양부모와 동거하는 한부모 가구의 약 29%에 불과했다. 한부모 어머니 개인 근로 소득이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단독가구가 88%로 가장 높고, 양부모 동거 시 12%로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동거 가구원의 소득이 전체 가구 소득 증가에 기여함으로써 한부모 어머니 개인 소득의 가구 소득 기여는 감소하게 됨을 보여준다.

2) 확대가구구성과 빈곤실태 및 복지혜택 수급

확대가구구성이 생산 활동이 가능한 가구원 수를 늘리고, 가구 총소득 증가에 기여하고, 그에 따라 경제적 여건의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는 해석은 자칫 성급한 것일 수 있다. 가구원 수가 늘어날수록 지출 역시 증가하기 때문에 단순히 확대가구 구성이 가구 총소득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가구구성과 빈곤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들은 총 가구소득을 가구원 수로 나눈 빈곤율을 통해 경제적 여건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자 한다. 이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확대가구를 구성한 한부모 어머니는 본인의 소득 이외 다른 가족원의 소득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단독가구 한부모 어머니보다 빈곤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Snyder 등(2006)은 한부모 어머니의 가구구성을 남성 파트너, 부모 세대와의 동거, 단독가구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각 가구의 빈곤율과 가구원의 소득 기여에 따른 빈곤 경감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빈곤율은 단독가구를 구성했을 때 가장 높았고, 남성 파트너와 동거할 때 가장 낮았다. 한부모 어머니의 소득만을 가구의 수입으로 보았을 때의 빈곤율은 단독가구가 가장 낮았는데, 이것은 단독가구 어머니의 수입이 세 가구 유형 중 가장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족의 경제적 여건이 전적으로 한부모 어머니의 소득에 의존하는 매우 취약한 상태를 의미한다. 반면 남성 파트너와 동거하거나 부모와 동거하는 확대가구 한부모 어머니의 경우 한부모 어머니 본인 이외의 소득을 모두 포함하면 빈곤율이 크게는 40%까지 감소했다. 빈곤율 감소에 도움을 주는 소득구성은 가구구성 유형마다 다르게 나타났는데, 사회보험은 부모와 동거하는 한부모 어머니 가구의 빈곤율을 약 1.5-2.5% 감소시켰으나 다른 가구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복지 수급액은 빈곤율 감소 효과가 1% 미만으로 모든 가구에서 빈곤 경감 효과가 가장 적었다.

Brown과 Lichter(2004)의 연구 역시 한부모 어머니의 가구구성을 단독가구, 남성 파트너와의 동거, 부모 세대와의 동거로 나누었다. 남성 파트너 동거 가구의 경우 남성 파트너의 소득이 가구 수입에 포함되면, 단독가구와 비교했을 때 소득 대 욕구 비율이 크게 약 18%까지 증가하고 빈곤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ondon(2000b)의 연구에서는 단독가구를 형성한 한부모 어머니의 50%가 빈곤선 이하의 소득 수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와 동거하는 한부모 어머니들의 빈곤율은 21%로 이는 전체 가구 빈곤율이 11%임을 감안할 때는 여전히 높으나 단독가구 보다는 상당히 낮았다. 부모와 동거하는 한부모 어머니 가구의 빈곤율은 부모 세대 소득이 포함되지 않을 때 63%까지 증가한다. 따라서 확대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한부모 어머니는 경제적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부모에게 상당히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성 파트너와 동거하는 한부모 어머니의 빈곤율은 16%로 가장 낮았는데, 마찬가지로 남성 파트너의 소득이 포함되지 않을 때 빈곤율은 47%까지 증가했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확대가구구성이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위기 상황에 완충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가족적응전략 관점에서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한부모 어머니들이 빈곤의 위험에 놓였을 때 남성 파트너나 부모와의 동거를 통해 가구 내 생계를 담당할 수 있는 성인의 수를 증가시키고 활용 가능한 자원을 확장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연구들 중 일부는 횡단 자료만을 이용했기 때문에 확대가구구성과 경제적 여건 개선 사이의 인과적 관계 해석에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가구구성은 복지혜택 수급 정도에서도 차이를 가져온다. 한부모 어머니의 가구구성과 AFDC(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수급 관계를 살펴본 London(2000b)의 연구에서 남성 파트너나 부모와의 동거로 확대가구를 구성한 한부모 어머니들의 AFDC 수급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단독가구를 형성한 어머니들은 복지수급을 위한 소득 계산에서 한부모 어머니 개인의 소득 수준만이 고려 대상이지만 확대가구 어머니들은 다른 성인 가구원의 수입이 포함되면서 가구 소득이 수급 기준을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Folk(1996)의 연구에서도 전체 한부모 어머니의 약 25%가 복지 수급을 받았는데, 이 중 단독가구 어머니의 수급률이 31%로 가장 높았다. 십대 청소년 어머니의 결혼 경험 여부 및 확대가구구성 여부에 따라 빈곤율을 살펴본 Trent & Harlan(1994)도 확대가구를 형성한 한부모 어머니들의 복지 수급이 단독가구 어머니보다 낮음을 밝혔다.

3)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여건 관련 국내 연구 경향

한부모 가족의 가구구성과 경제적 여건을 함께 살펴보는 선행연구는 1990년대 중반과 후반 시기에 집중된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에서 1996년 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근로연계 복지인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로 전환하는 복지개혁법(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of 1996)이 통과되면서 복지혜택의 대표적 수급자라 할 수 있는 빈곤 한부모 가족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부모의 가구

구성과 경제적 여건을 탐색하는 이 시기 연구들은 특히 십대 미혼모와 같이 사회적 비용 발생의 우려를 낳는 한부모 어머니들이 부모로부터 동떨어져 혼자 자녀를 키우는 존재가 아니라 다세대 가족 관계망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증명하고자 한다(Geronimus, 1997).

비록 선행연구가 특정 시기의 사회적, 정책적 관심에 뿌리를 두고 있으나 미국의 가족 구조 변화가 우리나라보다 앞서 진행된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선행연구들은 향후 한국 한부모 가족 변화의 방향 및 경향성을 분석하는데 있어 고려할만한 결과를 제시한다. 한부모 가족의 가구구성에 대한 국내 연구가 전무한 현실 상황에서 가구구성에 따른 가족의 경제적 여건을 살펴보는 위의 선행연구 결과들은 이 연구의 논의를 시작하는 출발 지점에서 언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여건과 관련된 국내 연구 경향은 빈곤과 생활실태(김미숙 등, 2000; 변화순 등, 2001; 엄미선·전동일, 2006; 옥선화 등, 2001; 이성림·김민정, 2001) 노동시장 참여(윤성호, 2008)와 노동시장 참여와 소득수준의 관계(이성림, 2004), 소득수준과 소득구성(윤홍식, 2004; 윤홍식 등, 2005), 소득구성과 물질적 곤궁(진미정·김은정, 2005), 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도(김은정·진미정, 2004) 등으로 나뉘볼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여건이 한부모의 가구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연구는 부재하다.

결혼해체 후 한부모 가족과 원가족의 관계를 살펴본 일부 연구들은 빈곤을 경험하는 한부모 어머니들이 가족에게 부담이 되기 싫어 스스로 관계를 차단하거나 혹은 한부모 어머니들의 가족 역시 경제적 곤란을 경험하기 때문에 한부모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거나 도움을 주기 어렵다고 보았다(최해경, 1997; 옥선화 등, 2004). 그러나 여성 가장이 된 후 가장 의지가 되는 존재로 친정식구를 꼽고, 이들이 중요한 지원망으로 작용한다는 결과(옥선화·성미애, 2004), 부모와 형제자매가 물질적 지지를 가장 많이 제공하고(김경신·김오남, 1997), 2촌 이내 친지로부터의 소득지원이 사적소득이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결과(윤홍식 등, 2005)에서 볼 수 있듯이 한부모의 가족 및 친족, 특히 부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한부모가 의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특히 한부모가 부모와의 동거를 통해 하나의 가구를 구성했다면 이들은 하나의 경제적 단위로 기능할 것이며, 가구구성원의 변화와 함께 수입 및 지출, 금전적 자원 및 시간적 자원, 가족관계 만족도 등의 모든 가족생활 측면에서 단독가구와는 다른 특성을 보일 것이라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국내 한부모 가족 연구에서 부모 세대가 한부모 가족에게 제공하는 지원이 가구 외부에서의 지원으로 제한되었던 점을 인식하고, 단독가구와 확대가구를 구성했을 때의 경제적 여건이 어떻게 다른지 탐색하고자 한다. 경제적 여건을 이해함에 있어서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소득수

준, 빈곤상태, 복지수급 여부 이외에도 물질적 곤궁을 함께 살펴볼 것이다. 물질적 곤궁이란 식생활, 주거환경, 교육, 건강 등의 일상생활에서 느끼거나 경험하는 빈곤수준을 측정하는 것이다. 소득수준만으로는 가족이 실제 생활에서 갖는 물질적 욕구의 충족 정도를 측정하기가 어려운데, 이것은 가족의 욕구 충족이 소득액의 크기 이외에도 상대적으로 경험하는 어려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진미정·김은정, 2005). 가구의 경제적 여건은 소득액의 크기나 그에 따른 빈곤율 외에 가족원의 가사노동 능력, 경제적 여건에 대한 정부 및 기관의 복지서비스, 주변 친구와 친지의 지원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도 영향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경제적 여건은 소득액 이외에도 가구원이 경험하는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어려움에 대한 이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을 반영하여 경제적 여건을 보여주는 다양한 지표를 이용하고자 한다.

4. 한부모의 성별 및 경제적 여건

한부모의 성별에 따른 경제적 여건의 차이를 살펴보는 연구들은 대체로 한부모 아버지의 취업, 빈곤상태가 양부모 가족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한부모 어머니보다 나은 편인 것으로 파악한다. 변화순 등(2001)의 연구에서 한부모 어머니의 월 평균 소득은 약 76만원이었으나 한부모 아버지는 99만원으로 다소 높았다. 마찬가지로 외국 연구에서도 한부모 어머니 가족의 약 50%가 빈곤선 이하에 해당하는 반면, 한부모 아버지 가족은 약 20%로 나타났다(Horowitz, 1994; Lino, 1994).

그러나 한부모 아버지와 한부모 어머니 사이의 경제적 여건에는 현실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결과도 찾아볼 수 있다. 오승환(2001)에 연구에서는 한부모 어머니의 월수입이 87만원, 한부모 아버지는 86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한부모 아버지 가족의 68.7%가 저소득 가구에 해당한다는 실태조사 결과와(보건복지부, 1997; 문선화, 1999에서 재인용), 한부모 어머니, 아버지 모두 가장 심각한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선택한 결과(김미숙 등, 2000; 옥선화·성미애, 2004)는 성별에 관계없이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여건이 취약함을 보여준다.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임금수준 및 직업 안정성에서 차별 받는 것은 사실이나 불안정한 취업상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한부모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다(고순생, 2001; 김미숙 등, 2000; 문선화, 1999). 뿐만 아니라 이들은 자녀와의 관계, 정서적 안정성, 가사노동에서 한부모 어머니들보다 더 큰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김미숙 등, 2000; 문선화, 1999; 변화순 등, 2001).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한부모의 성별에 따른 경제적인 여건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중요한 연구문제로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복지패널 2006년 1차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는 전국 7,000여 가구에 거주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가구원 약 14,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표본의 규모가 크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저소득층 가구는 추출률을 상향 조정하여 과대표집 했기 때문에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여건을 살펴보고자 하는 이 연구에 적합하다.

한부모 가족은 혼인상태가 사별, 이혼, 별거, 미혼으로 한부모가 된 어머니 혹은 아버지가 18세 이하의 자녀와 함께 가구를 구성한 경우를 의미한다. 가구구성 유형에 따른 경제적 여건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가구 유형을 단독가구와 확대가구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단독가구는 한부모 어머니, 한부모 아버지, 혹은 양부모가 18세 이하의 자녀와 함께 가구를 구성한 경우를 의미한다. 부모와 자녀세대를 제외한 다른 동거 가구원이 있으면 단독가구에서 제외된다. 18세를 초과한 자녀가 가구에 포함된 경우, 다른 자녀의 연령이 18세 이하라면 단독가구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3세대 가구는 한부모 어머니, 한부모 아버지, 혹은 양부모가 18세 이하의 자녀, 그리고 자녀의 조부모로 3세대를 구성한 가구유형을 일컫는다. 조부모에는 친정부모와 시부모를 모두 포함하였으며, 조부와 조모 중 한 명만 있는 경우도 확대가구로 포함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은 가구 형태를 1인 단독, 모자, 부자, 소년소녀 가장, 기타가구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제시한다. 모자 가구와 부자 가구는 한부모 단독가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3세대 가구를 구성한 한부모 가족을 살펴보기 위해 '가구원 ID' 및 '가구주와의 관계' 변수를 이용하여 가구원 간의 관계를 직접 파악하였다. 3세대 가구에 해당하는 한부모 가족은 가구주가 한부모인 경우와 한부모의 부모인 경우가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가구주와 모든 가구원의 관계를 먼저 파악한 후, 다시 한부모로 추정되는 가구원의 혼인상태, 한부모의 자녀로 추정되는 가구원의 연령을 확인한 뒤 최종적으로 가구구성을 확정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대상은 2006년 조사시점 당시 혼인상태가 사별, 이혼, 별거, 미혼이면서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한부모 어머니 218명과 한부모 아버지 108명, 총 326명과 혼인상태가 기혼이며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양부모 가족 1,999명이다.

2. 변수 측정

1) 한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한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는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근로유형, 건강상태를 살펴보았다. 연령은 연속변수로 측정하고 혼인상태는 사별, 이혼, 별거, 미혼의 네 집단으로 나누었다. 교육수준은 최종학력과 졸업여부 변수를 활용하여 중졸이하, 고졸이하, 대졸이하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근로유형은 '지난 1년간 주된 경제활동 참여 상태'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응답에 따라 전일제, 시간제, 미취업으로 구분하였다. 미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난 4주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던 실업자, 가사나 양육, 근로 무능력이나 근로의사 없음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비경제활동 인구를 모두 포함한다. 건강상태는 '건강이 아주 좋지 않음'(1점)에서 '아주 건강함'(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에서 '건강이 아주 좋지 않음'(1점)과 '건강하지 않은 편'(2점)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집단으로, '보통이다'(3점)부터 '아주 건강함'(5점)까지 응답한 경우를 건강상태가 좋은 집단으로 나누었다.

2) 한부모의 가족관련 특성

가족관련 특성으로는 가구원 및 자녀 수, 자녀의 연령, 미취학 자녀의 유무, 주거유형을 살펴보았다. 가구원 수는 한부모를 포함하여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총 가구원 수를, 자녀수는 18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녀수를 측정하였다. 자녀의 연령은 18세 이하에 해당하는 총 자녀의 평균 연령을 측정하였고, 막내자녀 연령은 자녀 중 가장 나이가 어린 자녀의 연령을 평균으로 측정하였다. 미취학 자녀 유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자녀 연령 만 6세를 기준으로 만 6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으면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로, 그렇지 않으면 없는 경우로 이분 변수화 하였다. 마지막으로 주거유형은 자가, 전세, 월세, 기타의 네 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3)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여건

가구의 경제적 여건으로는 소득 대 욕구비율, 빈곤선 층위, 소득규모 및 소득구성, 물질적 곤궁 경험, 기초생활수급유형의 다섯 가지 영역을 살펴보았다.

먼저 소득 대 욕구비율은 가구 총소득을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최저생계비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패널 자료가 2005년을 기준으로 응답자들에게 경제적 소득을 묻고 있기 때문에 2005년도 최저생계비 자료를 이용하였다.

빈곤성 층위는 보건복지부에서 계측조사를 통해 매년 발표하는 최저생계비를 빈곤선으로 설정하고, 빈곤선 100% 이하(절대 빈곤층), 빈곤선 100~120% 이하(차상위 계층), 120~150% 이하, 150% 이상의 네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가구의 총 소득규모는 가구원의 연간 소득을 총합하여 만원 단위로 측정하였다. 소득구성 항목은 가구원의 연간 근로 및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회보험 및 민간보험 소득, 민간보조금, 정부보조금, 기타의 여섯 가지로 구분된다.

물질적 곤궁 경험 측정을 위해 가구의 생활여건을 살펴본 다음 8개의 문항을 변수로 활용하였다. '돈이 없어서 본인이나 가족이 끼니를 거른 적이 있다', '두 달 이상 집세가 밀리거나 낼 수 없어서 집을 옮긴 경험이 있다', '공과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다', '세금을 내지 못해 전기, 전화, 수도가 끊긴 경험이 있다', '자녀의 공교육비를 한 달 이상 주지 못한 적이 있다', '돈이 없어 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 '돈이 없어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가지 못한 적이 있다', '가구원 중 신용불량자가 발생한 적이 있다'의 항목에서 이를 경험한 경우는 1로, 경험하지 않은 경우는 0으로 이분화 하여 총점 및 경험여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기초생활수급 유형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정도에 따라 일반수급, 조건부수급, 가구원 일부수급, 비수급의 총 네 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조건부수급은 근로능력이 있기 때문에(일반적으로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를 의미한다.

3. 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는 STATA 9.1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한부모의 가구구성에 따른 출현율,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족변인 특성, 경제적 여건의 전반적인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단, 양부모와 한부모의 가구구성 출현율에서는 각 가구 유형의 빈도수는 표본 그대로 제시하였으며, 비율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하였다. 이것은 빈곤층을 과대 표집한 자료의 특성을 고려하고 표본의 대표성을 살려 출현율 분석 결과를 실제 전국적인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함이다.

둘째, 한부모의 3세대 가구구성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가족변인을 살펴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한부모의 성별 및 가구구성별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족변인 특성, 경제적 여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과 t검증, F검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한부모와 양부모 가족의 3세대 가구 출현율

<표 1>은 한부모 가족과 양부모 가족의 가구구성 출현율을 비교한 결과이다. 각 가구유형의 빈도수는 표본 그대로 제시하였고, 비율은 표본의 대표성을 위해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표 1> 한부모 가족과 양부모 가족의 가구구성

(단위: 명, %)

	한부모 가족 (n=326)	한부모 가족		양부모 가족 (n=1999)
		한부모 어머니 (n=218)	한부모 아버지 (n=108)	
단독가구	235(71.51)	182(83.32)	53(47.92)	1,798(91.02)
3세대 가구	91(28.49)	36(16.68)	55(52.03)	201(8.98)

양부모 가족은 단독가구가 약 91%, 3세대 가구가 약 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2005)에 따르면 단독가구 90.4%(6,701,759), 3세대 가구 9.6%(707,685)로 이 연구의 분석 결과와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를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의 나이에 관계없이 미혼 자녀 모두를 포함한 통계청의 전수조사와 비율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전체 한부모 가족에서는 단독가구가 약 72%, 3세대 가구가 약 28%를 차지했다. 이 결과는 앞서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Bianchi, 1994; Bumpass & Lu, 2000) 한부모 가족의 3세대 가구 비율이 양부모 가족보다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보여 준다. 또한 한부모 가족 10가구 중 약 3가구가 3세대 가구를 구성한다는 사실은 단독가구 만을 한부모 가족으로 연구할 때 많은 수의 한부모 가족이 이 범주에서 누락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한부모의 성별에 따른 가구구성을 살펴보면, 한부모 아버지의 3세대 가구구성 비율이 한부모 어머니에 비해 두드러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약 4%p의 근소한 차이이지만 하나 한부모 아버지는 단독가구보다 3세대 가구의 비율이 더 높았다. 반면 한부모 어머니는 단독가구 약 83%로, 3세대 가구 약 17%로 단독가구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 어머니의 3세대 가구 비율은 한부모 아버지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편이나 양부모 가족보다는 여전히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부모 가족의 가구 및 세대 구성이 한부모 가족 연구에 있어, 특히 한부모 아버지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변수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선행연구 고찰에서 살펴보았듯이 한부모 아버지가 한부모 어머니보다 3세대 가구구성 비율이 높다는 결과(조영희 2004; Bianchi, 1994)와 그렇지 않다는 결과(Eggbeen et al., 1996)가 혼재되어 나타나고, 국내에서는 아직 이를 비교한 연구가 부재하기 때문에 <표 1>에서 나타난 결과 외에도 전국적인 수준의 정확한 통계 자료 분석이 계속해서 수행될 필요가 있다.

2. 한부모 성별 및 가구구성별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가족변인 특성

다음으로는 한부모의 성별 및 가구구성별로 한부모의 사회인구학적, 가족변인의 특성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한부모의 3세대 가구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한부모의 성별과 가구구성에 따라 한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전반적 경향 및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는 한부모 어머니와 한부모 아버지 내의 가구구성에 따른 차이와(단독가구, 3세대 가구) 한부모의 성별 및 가구구성별로 구분한 전체 집단(단독가구 한부모 어머니, 3세대 가구 한부모 어머니, 단독가구 한부모 아버지, 3세대 가구 한부모 아버지) 간의 차이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먼저 연령에서는 단독가구를 형성한 한부모 어머니와 한부모 아버지가 3세대 가구를 형성한 경우보다 연령이 높았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3세대 가구를 구성한 한부모 어머니는 평균 약 3세($t=3.00, p<.01$), 한부모 아버지는 평균 약 4세($t=3.74, p<.001$) 가장 단독가구 어머니와 아버지보다 연령이 낮았다. 또한 전체 네 집단 사이의 연령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F=6.47, p<.001$).

다음으로 혼인상태에서는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족의 증가가 두드러진다는 선행연구(신혜령 등, 2006; 조성연, 2004)에서도 나타났듯이 한부모의 성별이나 가구구성과 관계없이 모든 집단에서 이혼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주목할 점은 단독가구보다 3세대 가구일 때 이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한부모 어머니는 단독가구일 때 약 58%, 3세대 가구일 때 약 75%, 한부모 아버지는 단독가구일 때 약 79%, 3세대 가구일 때 약 89%로 성별과는 관계없이 3세대 가구일 때 이혼 비율이 10%p 이상 높았다. 반면 사별은 단독가구의 비율이 3세대 가구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한부모 어머니의 경우 약 21%p, 한부모 아버지의 경우 약 9%p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이혼을 경험한 한부모는 단독가구보다는 3세대 가구를, 사별을 경험한 한부모는 3세대 가구보다는 단독가구를 형성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네 집단 간 비교에서 혼인상태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chi^2=40.80, p<.001$), 한부모 어머니가 한부모 아버지

<표 2> 한부모의 성별 및 가구구성별 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명, 세, %)

	한부모 어머니			한부모 아버지			전체
	단독가구 (n=182)	3세대 가구 (n=36)	χ^2, t	단독가구 (n=53)	3세대 가구 (n=55)	χ^2, t	
연령	41.48(7.17)	38.44(5.17)	3.00**	44.00(5.69)	39.45(6.85)	3.74***	6.47***
혼인상태							
사별	43(23.63)	1(2.78)		5(9.43)	0(.00)		
이혼	106(58.24)	27(75.00)	9.54*	42(79.25)	49(89.09)	7.00	40.80***
별거	32(17.58)	7(19.44)		5(9.43)	3(5.45)		
미혼	1(.55)	1(2.78)		1(1.89)	3(5.45)		
교육수준							
중졸이하	54(29.67)	6(16.67)		17(32.08)	20(36.36)		
고졸이하	110(60.44)	20(55.56)	9.45**	30(56.60)	25(45.45)	1.66	12.93*
대졸이상	18(9.89)	10(27.78)		6(11.32)	10(18.18)		
근로유형							
전일제	95(52.20)	17(48.57)		33(62.26)	26(47.27)		
시간제	41(22.53)	10(28.57)	1.20	9(16.98)	16(29.09)	5.84	3.88
미취업자	46(25.27)	8(22.86)		11(20.75)	13(23.64)		
건강상태							
좋음	118(63.84)	40(75.47)	.73	26(72.22)	43(79.63)	.27	4.85
좋지않음	64(35.16)	13(24.53)		10(27.78)	11(20.37)		

*p<.05, **p<.01, ***p<.001

비해 사별 및 별거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고 이혼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교육수준에서는 한부모 어머니와 한부모 아버지 모두 3세대 가구일 때 대졸이상 비율이 단독가구보다 높았다. 그러나 이 차이는 한부모 어머니일 때만 통계적으로 유의했다($\chi^2=9.45$, $p<.01$). 한부모 어머니는 3세대 가구일 때 중졸 및 고졸이하 비율이 단독가구보다 낮았고, 대졸이상 비율은 약 18%p 높았다. 이것은 3세대 가구를 구성하는 한부모일수록 교육수준이 낮다는 선행연구(Eggbeen et al., 1996; London, 2000a; Tienda & Angel, 1982)와는 반대되는 결과이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3세대 가구 한부모와 단독가구 한부모 사이의 연령 차이 때문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아진다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단독가구 보다 평균 연령이 낮고 젊은 세대의 비율이 높은 3세대 가구 한부모의 교육수준이 비교적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근로유형에서는 성별이나 가구구성에 관계없이 전일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3세대 가구 한부모보다 단독가구의 전일제 비율이 더 높았다. 한부모 어머니와 한부모 아버지 모두 단독가구일 때는 전일제, 미취업, 시간제 근로유형 순서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3세대 가구일 때는 전일제, 시간제, 미취업의 순서로 나타났다. 특히 단독가구를 구성한 한부모 아버지의 전일제 근로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가구구성별 근로유형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건강상태는 3세대 가구일 때 '좋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네 집단 간 건강상태를 비교한 결과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표 3>은 한부모의 성별 및 가구구성 유형에 따라 가족과 관련된 특성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준다. 그 결과 가구원 수, 자녀의 연령, 막내 자녀의 연령, 미취학 자녀 유무, 주거유형에서 각 가구구성과 전체 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평균 가구원 수는 3세대 가구일 때 약 1.3명 이상 많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한부모 어머니: $t=-8.38$, $p<.001$, 한부모 아버지: $t=-8.92$, $p<.001$). 모든 집단에서 자녀수는 평균 약 1.5명으로 비슷했다. 즉 3세대 가구원 수의 증가는 한부모의 부모 세대가 포함되기 때문이며 자녀수와는 관계가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평균 자녀 연령(한부모 어머니: $t=3.42$, $p<.001$, 한부모 아버지: $t=3.74$, $p<.001$)과 막내 자녀 연령(한부모 어머니:

<표 3> 한부모의 성별 및 가구구성과 가족변인 특성

(단위: 명, 세, %)

	한부모 어머니			한부모 아버지			전체
	단독가구 (n=182)	3세대 가구 (n=36)	χ^2, t	단독가구 (n=53)	3세대 가구 (n=55)	χ^2, t	
가구원 수	2.77(.69)	4.28(1.03)	-8.38***	2.81(.76)	4.13(.77)	-8.92***	75.24***
자녀 수	1.51(.59)	1.56(.73)	-.42	1.62(.71)	1.53(.60)	.75	.46
자녀 연령	11.89(4.31)	9.73(4.22)	3.42***	12.64(4.05)	10.26(4.23)	3.74***	8.46***
막내자녀연령	11.50(4.45)	9.00(4.62)	3.06**	12.09(4.23)	9.09(4.17)	3.72***	7.82***
미취학자녀							
없음	151(82.97)	25(69.44)	3.53	46(86.79)	39(70.91)	4.06*	7.89*
있음	31(17.03)	11(30.56)		7(13.21)	16(20.09)		
주거유형							
자가	33(18.13)	17(47.22)	19.21***	10(18.87)	30(54.55)	16.22***	44.82***
전세	37(20.33)	10(27.78)		8(15.09)	7(12.73)		
월세	94(51.65)	7(19.44)		29(54.72)	13(23.64)		
기타	18(9.89)	2(5.56)		6(11.32)	5(9.09)		

*p<.05, **p<.01, ***p<.001

t=3.06, p<.01, 한부모 아버지: t=3.72, p<.001) 모두 3세대 가구일 때 단독가구 보다 23세 적었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특히 막내 자녀의 연령은 가족의 발달 단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위의 결과는 3세대 가구 한부모 가족의 발달 단계가 단독가구보다 낮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앞서 <표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3세대 가구일 때 한부모의 연령이 유의하게 낮고, <표 3>에서 미취학 자녀 비율이 유의하게 높다는 결과(한부모 아버지: t=4.06, p<.05)와도 연결될 수 있다.

주거유형에서도 한부모 성별, 가구구성별 차이가 나타난다. 한부모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단독가구일 때, 50% 이상이 월세에서 산다고 응답하였는데 이것은 단독가구 한부모 가족의 주거 안정성이 상당히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3세대 가구 한부모 어머니의 약 47%, 한부모 아버지의 약 55%가 자신이나 부모가 소유한 집에서 살고 있다고 응답해 3세대 가구 한부모 가족의 주거환경이 단독가구 한부모 가족보다 안정적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살펴본 한부모의 사회인구학적, 가족변인 특성 중 3세대 확대가구구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 따르면 3세대 가구구성에는 한부모의 연령, 성별, 교육수준, 혼인상태, 근로유형, 막내 자녀의 연령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한부모의 연령이 1세 높아질수록 3세대 가구를 구성하

는 승산은 6% 감소했다. 즉 한부모 연령이 증가 할수록 자신의 부모와 함께 거주하기보다 자녀와 독립적으로 가구를 형성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결과는 3세대 가구를 구성하는 한부모 어머니의 연령이 단독가구 어머니보다 낮다는 서구의 선행연구(London, 2000a; Hogan et al., 1990; Edin & Lein, 1997)와 일치한다. 그러나 연령 증가와 승산의 관계가 유의수준 p<.1로 다소 낮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요하며 향후 이와 관련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한부모의 성별에서는 한부모 아버지가 한부모 어머니 보다 3세대 가구를 구성하는 승산이 5.43배 높았다. 앞서 양부모 가족과 한부모 가족의 가구구성 출현율에서 비교한 바와 같이, 한부모 어머니는 다수에 해당하는 약 83%가 단독가구인 반면, 한부모 아버지는 3세대 가구 비율이 약 52%로 단독가구 비율 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교육수준에서는 준거집단 '고졸이하'와 비교했을 때 '대졸 이상'인 한부모들이 3세대 가구를 구성할 승산이 2.64배 높았다. 이 결과는 교육수준이 높은 한부모가 단독가구를 구성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선행연구(London, 2000a; Tienda & Angel, 1982)와 반대된다. 또한 연령이 통제된 후에도 여전히 교육수준이 가구구성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은 앞서 3세대 가구를 형성한 한부모의 연령이 낮기 때문에 단독가구보다 교육수준이 높을 수 있다는 추측이 타당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별거나 이혼 경험 여성이 사별 여성보다 통계적으로 교육수준이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윤홍식, 2004)와 연결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즉 단독가구에서는 사별의

<표 4> 한부모의 3세대 가구구성 결정에 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¹⁾

	계수(S.E.)	승산비(S.E.)
상수	.12(1.70)	
연령	-.06(.03) [†]	.94(.03)
성별 (남성=1, 여성=0)	1.69(.31) ^{***}	5.43(1.69)
교육수준 (준거집단=고졸이하)		
중졸이하	.42(.37)	1.52(.56)
대졸이상	.97(.40) [*]	2.64(1.07)
혼인상태 (준거집단=사별)		
이혼	2.21(1.05) [*]	9.14(9.59)
별거	2.00(1.10) [†]	7.38(8.13)
미혼	2.69(1.45) [†]	14.74(21.35)
건강상태 (좋은=1, 좋지 않음=0)	.06(.38)	71.06(.40)
근로유형 (준거집단=시간제)		
전일제	-.82(.36) [*]	.44(.16)
미취업자	-.30(.44)	.74(.32)
미취학 자녀 유무 (있음=1, 없음=0)	-.52(.52)	.59(.31)
막내자녀 연령	-.11(.06) [*]	.89(.05)
LR χ^2		88.13 ^{***}
d.f.		12
n		326

[†]p<.1, *p<.05, ***p<.001

주: 1) 한부모 가구 내 가구구성의 결정 요인을 살펴본 국내 연구가 없으므로 본 연구는 탐색적 의도로 일종 오류 수준을 p<.1까지 높여 결과를 제시하였음. 결과 해석에 주의를 요함.

비율이 높은 반면, 이혼, 별거 비율은 3세대 가구에서 유의하게 높기 때문에 3세대 가구를 구성한 한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는 학력이 높은 한부모일수록 가족이나 친척, 이웃, 종교인, 사회복지사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선행연구(변화순 등, 2001)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교육수준이 높은 한부모들이 부모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고, 3세대 가구 구성은 하나의 지원 형태로 나타난 결과라고 해석해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가구구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변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분석 결과를 통해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혼인상태에서는 ‘사별’인 준거집단과 비교하여 3세대 가구를 구성할 승산이 ‘이혼’일 때 9.14배, ‘별거’일 때 7.38배, ‘미혼’일 때 14.74배 높았다. 다시 말해 이혼, 별거, 미혼으로 결혼해체를 경험한 한부모보다 사별을 경험한 한부모가 자신의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고 단독가구를 형성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결과는 사별을 경험한 한부모 어머니들이 이혼이나 별거, 미혼 한부모 어머니들보다 연령이 높고, 경제적 여건이 좋은 편이고 (윤홍식, 2004; Amato, 1987), 연령이 낮고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을수록 확대가구를 형성한다는 선행연구(London 2000a; London 2000b; Parish et al. 1991; Tienda & Angel, 1982)와 연결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혼인상태에 따른 한부모

의 경제적 여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석에 한계를 갖는다.

근로유형에서는 준거집단인 ‘시간제’보다 ‘전일제’일 때 3세대 가구를 구성하는 승산이 56% 낮았다. 전일제 근로 유형의 한부모일수록 단독가구를 구성한다는 것은 선행연구 고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취업에 어려움을 갖는 경우일수록 3세대 가구를 구성하는 경향(London, 2000a)이 나타난다는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마지막으로 막내 자녀의 연령이 1세 높아질수록 3세대 가구를 구성할 승산은 11% 낮았다. <표 3>의 한부모 가족변인에서 살펴본 것처럼 3세대 가구 한부모 가족의 한부모의 연령, 막내 자녀의 연령 모두 단독가구보다 낮고 미취학 자녀 비율은 단독가구보다 높았는데, 이것은 3세대 가구를 구성한 한부모 가족의 발달주기가 단독가구와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3. 한부모의 성별 및 가구구성별 경제적 여건

다음으로는 한부모의 성별 및 가구구성별로 경제적 여건에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표 5>는 가구의 소득수준과 빈곤상태를 분석한 결과이다. 소득 대 육구비율은 가구의 연평균 총소득을 가구원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로 나눈

<표 5> 한부모의 성별 및 가구구성별 소득수준 및 빈곤실태 (단위: 명, %)

	한부모 어머니			한부모 아버지			전체
	단독가구 (n=182)	3세대 가구 (n=36)	χ^2, t	단독가구 (n=53)	3세대 가구 (n=55)	χ^2, t	F, χ^2
소득 대 욕구비율	1.38(.73)	1.31(.65)	.59	1.36(1.88)	1.40(.71)	-.15	.08
빈곤실태							
빈곤선100%이하	49(26.92)	15(41.67)		13(24.53)	18(32.73)		
100-120% 이하	37(20.33)	5(13.89)	3.55	8(15.09)	7(12.73)	5.05	10.67
120-150% 이하	37(20.33)	5(13.89)		8(15.09)	15(27.27)		
150% 이상	59(32.42)	11(30.56)		24(45.28)	15(27.27)		

것으로 이 비율이 1일 때 가구 총소득과 최저생계비는 동일함을 의미하고, 가구의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비율은 높아진다. <표 5>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한부모의 가구 총소득은 최저생계비보다 약 1.3~1.4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차상위 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2배임을 고려했을 때, 이 결과는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상황이 한부모의 성별이나 가구구성별 차이와는 관계없이 여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저생계비를 빈곤선으로 설정하고, 빈곤선 100% 이하, 120% 이하, 150% 이하, 150% 이상으로 구분한 빈곤실태 결과는 각 집단의 소득수준 분포를 보다 자세히 보여준다. 여기에서도 한부모의 성별이나 가구구성에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한부모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3세대 가구일 때 단독가구일 때 보다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것은 3세대 가구를 구성한 한부모 가족의 소득수준 및 경제적 여건이 단독가구보다 높다는 선행연구 (Angel & Tienda, 1982; Brown & Lichter, 2004; Bumpass & Raley, 1995; Folk, 1996; Snyder et al., 2006; Winkler, 1993)와는 반대되는 결과이다. 특히 3세대 가구 한부모 어머니는 약 42%가 빈곤선 10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경제적 여건이 상당히 취약함을 알 수 있다.

빈곤선 100~120% 이하의 집단까지 포함할 경우 3세대 가구와 단독가구 비율 사이의 격차가 감소하는데, 이것은 빈곤선 100~120% 이하에 해당하는 단독가구의 비율이 3세대 가구보다 높기 때문이다.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되는 빈곤선 120% 이하 집단에 해당되는 한부모 어머니는 단독가구일 때 약 20%, 3세대 가구일 때 약 14%, 한부모 아버지는 단독가구일 때 약 15%, 3세대 가구일 때 약 13%이다. 비록 한부모 아버지가 빈곤 계층에 해당하는 비율이 한부모 어머니보다 낮다고는 하나 그 차이는 매우 미미하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도 않다. 이것은 남성 한부모 가족이 여성 한부모 가족보다 경제적 어려움을 덜 경험한다는 선행연구와(변화순 등, 2001; Horowitz,

1994; Lino, 1994)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가구의 경제적 여건 및 빈곤 실태를 살펴봄에 있어서 가구 총소득만을 지표로 활용할 경우, 일상생활의 빈곤 경험과 욕구 충족 정도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표 6>에서는 물질적 곤궁 경험을 묻는 문항을 통해 한부모 가족의 성별 및 가구구성별로 일상적인 영역에서의 빈곤 경험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표 6>에서 총점은 각 문항의 경험 여부를 합하여 점수화한 것이다. 모든 집단의 물질적 곤궁 경험 정도는 평균 2점 이하로 8개 영역 중 2개 이하의 영역에서만 물질적 곤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점에서 가구구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한부모 아버지에서만 나타나는데($t=2.15, p<.05$), 3세대 가구 아버지들이 상대적으로 물질적 곤궁을 경험하는 비율이 낮았다.

세부 영역을 살펴보면 한부모 어머니와 한부모 아버지 모두 단독가구일 때, 짐세를 내지 못한 경험이 유의하게 많았다(한부모 어머니: $\chi^2=4.63, p<.05$, 한부모 아버지: $\chi^2=3.22, p<.05$). 이것은 <표 3>의 가족변인에서도 3세대 가구일 때 자신이 소유한 집에서 거주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고 단독가구일 때 월세라는 응답이 높았던 것과 연결되는 결과이며, 따라서 3세대 가구일 때 단독가구보다 거주환경에서의 어려움을 적게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외 물질적 곤궁 영역에서는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을 제외하고 3세대 가구 한부모 어머니가 문제를 경험하는 비율이 모두 낮았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한부모 아버지는 전기나 전화, 수도가 끊긴 경험에서 3세대 가구일 때 유의하게 어려움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chi^2=4.10, p<.05$), 그 외 항목에서는 가구구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모두 3세대 가구에서 곤궁 경험 비율이 낮게 나타난다. 특히 끼니를 거른 경험과 같이 가족원의 건강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 항목에서 단독가구 비율이 높다는 점은 우려할만한 부분이다.

한부모 어머니와 한부모 아버지 모두 단독가구와 3세대 가

<표 6> 한부모의 성별 및 가구구성별 물질적 곤궁 경험

(단위: 점, 명, %)

	한부모 어머니			한부모 아버지			전체 F, χ^2
	단독가구 (n=182)	3세대 가구 (n=36)	χ^2, t	단독가구 (n=53)	3세대 가구 (n=55)	χ^2, t	
총 점	1.41(1.86)	1.06(1.58)	1.08	1.85(2.07)	1.09(1.58)	2.15*	2.03
끼니 거른 경험	11(6.04)	0(.00)	2.29	4(7.55)	2(3.64)	.79	3.09
집세 내지 못한 경험	30(16.48)	1(2.78)	4.63*	10(18.87)	4(7.27)	3.22*	7.89*
공과금 미납 경험	73(40.11)	12(33.33)	.58	24(45.28)	15(27.27)	3.79	4.55
전기/전화/수도 끊긴 경험	22(12.09)	4(11.11)	.03	11(20.75)	4(7.27)	4.10*	4.74
자녀 교육비 주지 못한 경험	21(13.29)	3(10.34)	.19	11(22.00)	6(13.04)	1.32	4.13
겨울 난방 못한 경험	31(17.03)	5(13.89)	.22	13(24.53)	11(20.00)	.32	2.13
병원 가지 못한 경험	28(15.38)	6(16.67)	.04	9(16.98)	9(16.36)	.01	.11
가구원 중 신용불량자 발생	41(22.53)	7(19.44)	.17	16(30.19)	9(16.36)	2.90	3.19

*p<.05

구의 구분 없이 공통적으로 공과금 미납을 경험한 사례가 가장 많고 끼니를 거른 경험이 가장 적었다. 이것은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식생활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공과금과 같이 납부 기한을 늦추는 것이 가능한, 상대적으로 덜 위협적인 영역의 문제는 경제적 상황에 따라 조절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소득수준, 빈곤실태, 물질적 곤궁 경험은 한부모 가족이 가진 경제적 자원의 양과 정도를 보여준다. 다음으로 소득구성, 기초생활수급 유형을 통해 이들이 어떠한 종류의 경제적 자원을 이용하여 살아가는지를 성별 및 가구구성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표 7>은 소득규모와 소득구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세부 소득 항목을 합한 가구 총소득은 한부모 어머니와 한부모 아버지 모두 3세대 가구일 때 유의하게 높았다. 단독가구 한부모 가족과 비교했을 때 3세대 가구를 형성한 한부모 어머니는 연간 평균 약 464만원, 한부모 아버지는 약 529만원 소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네 집단 중 단독가구 한부모 어머니와 3세대 가구 한부모 아버지 사이의 가구 총소득이 약 603만원으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F=4.98, p<.01$). 그러나 <표 5>의 빈곤실태 분석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이 가구원 수를 고려한 소득 대 욕구비율에 따르면 3세대 가구의 경제적 여건이 단독가구보다 더 낮다고 할 수 없다. 즉 가구원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구 전체의 소득규모 증가가 소득수준 향상으로 바로 연결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소득구성에 있어 성별과 가구구성별로 차이가 나타나지는지를 보았다. 이미 3세대 가구의 가구 총소득이 단독가구보다 높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각 소득항목의 절대적

크기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여기에서는 각 소득항목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정도를 비교하는 것이 의미를 갖는다.

먼저 모든 집단에서 근로 및 사업소득이 60% 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것은 한부모 가족의 대다수가 가구원의 취업을 통해 획득한 수입에 가장 크게 의존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단독가구 한부모 가족의 근로 및 사업소득이 한부모 개인의 소득이라면, 3세대 가구 한부모 가족에서는 한부모 이외 모든 성인 가구원의 근로 소득을 더한 것이라는 차이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가구구성원 개인의 근로소득을 나누어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부모와 그 외 성인 가구원의 근로소득을 구분하여 각 비율을 살펴볼 수 없다. 그러나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단독가구와 3세대 가구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가구원과 노동을 분담하지 못하는 단독가구 한부모가 경험하는 경제적 부담이 3세대 가구보다 클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부모의 성별 구분에서는 한부모 아버지의 근로·사업소득 비율이 한부모 어머니보다 10%p 이상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재산소득에서는 한부모 아버지만 가구구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t=-2.22, p<.05$), 3세대 가구 한부모 아버지가 단독가구보다 연 평균 약 39만원의 재산소득을 더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소득에서 재산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로 높지 않았다. 전체 네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사회보험, 민간보험에서는 한부모 어머니의 가구 구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64, p<.01$). 3세대 가구 한부모 어머니의 사회 및 민간보험 비율은 전체 소득의 약 16%로 상당히 높고, 단독가구 한부모 어머니보다 연간 약 294

<표 7> 한부모의 성별 및 가구구성별 연간 소득규모와 소득구성 (단위: 만원, %)

	한부모 어머니			한부모 아버지			전체
	단독가구 (n=182)	3세대 가구 (n=36)	t	단독가구 (n=53)	3세대 가구 (n=55)	t	
가구 총소득	1522.86(100.00)	1986.98(100.00)	-2.33 *	1597.35(100.00)	2126.01(100.00)	-1.78 *	4.98**
근로/사업	971.83(63.82)	1227.44(61.77)	.01	1204.17(75.39)	1624.13(76.39)	-.01	1.15
재산	16.62(1.09)	53.50(2.69)	-1.00	3.47(.22)	41.81(1.97)	-2.22 *	1.23
사회/민간보험	29.18(1.92)	323.17(16.26)	-2.64 **	18.11(1.13)	37.24(1.75)	.02	10.01***
민간보조금	191.51(12.58)	91.58(4.61)	2.62 **	111.64(6.99)	151.58(7.13)	-.68	1.48
정부보조금	244.93(16.08)	188.32(9.48)	1.10	213.22(13.35)	177.63(8.36)	1.40	1.66
기타	68.79(4.52)	102.97(5.18)	-.75	46.74(2.93)	93.60(4.40)	-.82	1.24

*p<.05, **p<.01, ***p<.001

<표 8> 한부모의 성별 및 가구구성별 기초생활수급 (단위: 명, %)

	한부모 어머니			한부모 아버지			전체
	단독가구 (n=182)	3세대 가구 (n=36)	χ ²	단독가구 (n=53)	3세대 가구 (n=55)	χ ²	
수급유형							
일반수급	53(29.12)	4(11.11)	16.51***	9(16.98)	5(9.09)	11.78**	35.36***
조건부수급	14(7.69)	1(2.78)		7(13.21)	0(.00)		
가구원일부수급	2(1.10)	4(11.11)		1(1.89)	5(9.09)		
비수급	113(62.09)	27(75.00)		36(67.92)	45(81.82)		

p<.01, *p<.001

만원의 소득을 더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단독가구의 경우 이 비율이 전체 소득의 2%에 미치지 못했다. 한부모 아버지 역시 가구구성에 관계없이 사회 및 민간보험 비율이 전체 소득의 2%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전체 네 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F=10.01, p<.001), 이것은 3세대 가구 한부모 어머니의 사회, 민간보험 비율이 다른 세 집단보다 매우 높기 때문이다.

민간 및 정부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한부모 어머니와 한부모 아버지 모두 단독가구일 때 높았다. 그러나 통계적으로는 단독가구 한부모 어머니의 민간보조금 비율만이 3세대 가구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2.62, p<.01). 한부모 어머니의 경우 민간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단독가구 약 13%, 3세대 가구 약 5%로 단독가구 한부모 어머니가 연평균 약 100만원을 3세대 가구 어머니보다 더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한부모 어머니와 한부모 아버지 모두 근로 및 사업소득이 가구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3세대 가구는 단독가구보다 재산소득이나 민간보험과 같은 사적 이전소득 비율이 높은 반면, 단독가구

는 민간보조금과 같은 공적 이전소득의 구성 비율이 높았다.

다음으로 <표 8>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및 수급유형을 한부모의 성별 및 가구구성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공적 지원 정책인 기초생활보장에서 가구구성별로 수급 여부 및 수급 유형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을 살펴볼 수 있다.

일반수급과 조건부수급, 가구원 일부 수급을 통틀어 기초생활보장을 수급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단독가구 한부모가 3세대 가구보다 높았다. 단독가구 한부모 가족에서는 일반수급과 조건부수급의 비율이 높았고, 가구원 중 일부가 수급한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3세대 가구에서 더 높았다. 즉 3세대 가구 한부모 가족과 비교하여 단독가구일 때 더 많은 한부모 가족이 기초생활수급제도라는 공적인 지원에 의존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단독가구 한부모 가족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비율이 높다는 점을 미루어 이들이 3세대 가구보다 더 열악한 경제적 여건에 놓여있기 때문에 복지혜택 수급 자격을 획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표 5>의 빈곤실태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3세대 가구를 구성한 한부모 가족의 빈곤수준은 결코 단독가구보다 낮다고 할 수 없으며, 차상위 이하 빈곤 계층에 해당하는 비율은 오히려 3세대 가구일 때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세대 한부모 가족의 수급 비율이 낮은 이유는 많은 경우 3세대 가구를 구성한 한부모의 부모가 부양의무자(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 해당되고, 이들의 근로소득 및 재산소득이 한부모의 소득으로 인정되어 수급 기준을 넘어서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가는 가족원간의 상호작용, 양육, 취업, 주거환경, 복지정책 수급 등 생활 전반에 걸쳐 변화를 가져오고, 전반적인 경제적 여건과 복지감의 차이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한부모 가족 역시 가구구성에 따라 경제적 여건이 달라질 수 있으나 지금까지 한부모 가족을 살펴본 많은 연구들은 한부모를 가구 내 다른 성인 가구원이 없는 상태에서 홀로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와 아버지로 정의 내렸다. 이 연구는 국내 한부모 가족 연구에서 한부모의 성별 및 가구구성에 따른 다양성을 간과한 점에 주목하고, 이에 따른 한부모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가족변인 특성, 그리고 가구의 경제적 여건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한부모 가족의 생활실태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3세대 가구 출현율은 양부모 가족보다 한부모 가족에서 높았다. 한부모 가족 중 3세대 가구 비율은 약 30%인 반면, 양부모 가족 중 3세대 가구 비율은 약 10%에 미치지 못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단독가구가 아닌 형태로 살아온 많은 한부모 가족이 그동안 연구 대상에서 누락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한부모의 성별에 따른 가구구성에서는 한부모 아버지가 한부모 어머니보다 3세대 구성 비율이 높았다. 무엇보다 한부모 아버지의 경우 3세대 가구구성 비율이 52%로 단독가구 비율보다 높았는데, 이는 특히 한부모 아버지 연구에서 가구구성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둘째, 한부모의 성별 및 가구구성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가족변인 특성을 살펴본 결과 3세대 가구를 형성한 한부모는 단독가구를 형성한 한부모 보다 연령이 낮고, 교육수준이 높고, 사별 비율이 낮고 이혼의 비율이 높았다. 가구원 수는 3세대 가구일 때 평균 13명 많았고, 자녀 연령은 평균 23세가 낮았다. 주거유형은 3세대 가구일 때는 자가 비율이 가장 높고, 단독가구일 때는 월세 비율이 가장 높아 3세대 가구의 주거환경이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3세대 가구구성에는 한부모의 연령과 성별, 막내 자녀의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근로유형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의 연령과 막내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3세대 가구를 구성하는 확률이 높았고, 한부모 어머니보다 한부모 아버지가, 고졸이하 교육수준보다 대졸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한부모가, 사별보다 이혼, 별거, 미혼을 경험한 한부모가, 전일제보다 시간제 근로유형을 가진 한부모가 3세대 가구를 구성하는 경향을 보였다. 교육수준을 제외한 다른 변인들은 모두 경제적으로 취약한 여건을 가진 한부모가 3세대 가구를 구성할 승산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부모의 연령이 낮고 가족 발달주기가 느릴수록 가족이 축적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은 미약하다. 또한 사별을 경험한 한부모의 경제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높고(윤홍식, 2004; Amato, 1987) 미혼 한부모의 여건이 가장 열악하다는 선행연구(Snyder et al., 2006)를 통해 혼인상태가 사별인 집단보다 이혼, 별거일 때 3세대 가구구성 승산이 높고, 특히 미혼 한부모의 경우 무려 약 15배 높은 승산이 나타나는 이유를 예측해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전일제 근로 한부모가 시간제 보다 높은 근로소득을 보이므로 시간제 근로 한부모가 3세대 가구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적응전략 관점에 따라 인적, 물질적 자원이 취약한 한부모들이 경제적인 여건 향상을 위해 부모 세대와의 동거를 선택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가구구성의 종단적 변화를 살펴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3세대 가구를 구성한 한부모들이 결혼해체를 경험한 이후 확대가구를 선택한 것인지, 해체 이전부터 확대가구 형태로 살아온 것인지 알 수 없다.

넷째, 소득수준 및 빈곤실태에서는 한부모의 가구구성이나 성별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물질적 곤궁은 3세대 가구일 때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가구의 총소득 수준은 가구구성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보다 약 1.3배 높은 수준으로 전반적인 경제적 상황이 여유롭지 못했다. 최저생계비 120% 이하, 즉 차상위 계층 이하에 해당하는 한부모 가족이 40~55%로 이들의 다수가 빈곤에 위협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물질적 곤궁 경험에서는 한부모 어머니, 한부모 아버지 모두 3세대 가구일 때 집세를 내지 못한 경험이 적었고, 한부모 아버지는 전기, 전화, 수도가 끊긴 경험에서 3세대 가구일 때 어려움을 덜 경험했다. 그 외 다른 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대부분 단독가구일 때 3세대 가구보다 어려움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끼니를 거르는 것과 같이 건강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영역에서 어려움을 경험한 단독가구 비율이 3세대 가구보다 높다는 점은 우려할만한 부분이다.

다섯째, 가구 소득구성에서 단독가구는 민간보조금이나 정부보조금과 같은 공적 이전소득, 3세대 가구는 재산소득, 사회보험, 민간보험과 같은 사적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한부모 어머니는 3세대 가구일 때 사회 및 민간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고, 단독가구일 때는 민간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한부모 아버지는 3세대 가구 일 때 재산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단독가구보다 높았다. 대표적 공적 지원 제도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도 한부모의 성별에 관계없이 단독가구의 수급비율이 높았다. 이를 통해 한부모 가족은 가구구성에 따라 가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동원하는 자원의 종류가 다르며, 단독가구일 경우 공적 이전소득, 3세대 가구는 사적 이전소득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한부모의 성별과 가구구성의 차이가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여건 전반의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는 차이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한부모 가족을 연구하고, 이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정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한부모 가족 내의 다양성이 고려된다면, 한부모 가족의 생활에 보다 밀접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이 연구를 통한 몇 가지 함의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부모 가족의 3세대 가구구성은 일부 경제적 여건 개선과 연결될 수 있으나, 이는 한부모의 기초적인 생활 유지를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시간제로 일하며 어린 자녀를 키우는 젊은 한부모처럼 경제적으로 취약한 한부모일수록 3세대 가구를 구성한다는 사실은 이들이 지원을 얻기 위해 부모와의 동거를 선택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 연구에 따르면 3세대 가구를 구성했을 때 단독가구보다 물질적인 곤궁을 덜 경험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구원 수 대비 소득 수준을 고려한 빈곤실태 지표는 두 가구 유형의 경제적 여건에 근본적인 차이가 없음을 보여준다. 즉 부모와의 동거를 통해 물질적 곤궁을 덜 경험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살아갈 수는 있으나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빈곤을 자체가 경감되고 있지는 않다. 1990년대 중후반 복지개혁 시기에 이루어진 미국의 연구들은 세대 간 사적 자원 이전을 통해 국가 차원의 복지 지원으로 지출되는 과도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의 여부를 타진해보고자 수행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 연구는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문제가 가족이라는 사적 지원망의 동원만으로 간단하게 해결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만약 한부모 가족이 형성한 3세대 가구의 취약한 경제적 여건이 장기적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한부모의 부모 세대는 노후 대비를 위한 자원을 축적할 수 없고, 한부모 역시 소득의 일부를 저축할 여유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부모와 그 부모세대 모두의 자원이 소진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둘째, 한부모 아버지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한부모 아버지는 한부모 어머니와 비교하여 빈곤의 위협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빈곤실태를 살펴본 결과 네 가구 유형 중 단독가구 한부모 아버지가 상대적으로 가장 덜 빈곤한 편이었으나, 역시 차상위 계층 이하 비율이 40%에 달했다. 그러므로 주생계부양

자를 상실한 한부모 어머니, 주양육담당자를 상실한 한부모 아버지라는 고정 관념 아래 경제적인 문제가 한부모 아버지가 당면한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닐 것이라고 단언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한부모 아버지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익숙하지 않은 양육과 가사의 이중고를 더 심각하게 경험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스트레스는 알코올 중독이나 자녀 방임 및 유기의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순생, 2001; 문선화, 1999).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부자가정을 수용할 수 있는 보호시설은 전국적으로 3개소에 불과할 정도로 한부모 아버지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아직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이혼의 증가와 함께 한부모 아버지의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교육이나 복지 프로그램에서도 한부모 아버지가 경험하는 문제의 특성에 주의를 기울이고 보다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셋째, 한부모의 가구구성에 따라 우선적으로 필요한 복지지원 서비스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물질적 곤궁 경험에 따르면 단독가구 한부모 가족은 주거영역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안정적 생활을 위해 우선적으로 주거문제가 해결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위해 정부가 국민임대주택 중 일정량을 지원하고 있다고는 하나 공급 부족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신혜령 등, 2006). 이들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의 공급량을 늘리거나 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복지자금을 증액하는 등의 정책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넷째, 3세대 가구를 구성한 한부모 가족이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수혜에서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 3세대 가구는 가구 소득구성에서 사적 이전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반면 민간 정부 보조금의 비율이 낮다. 이것은 3세대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제도와 같은 공적 지원을 얻기 위해 단독가구보다 엄격한 수급 자격 기준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일 수 있다. 부모의 재산이나 근로소득이 한부모의 소득으로 함께 산정되기 때문에 3세대 가구를 형성한 한부모는 단독가구보다 저소득 가정으로 선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소득수준이 낮은 3세대 가구의 경우, 향후 부양의무자의 능력과 관계없이 한부모 개인의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출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복지패널은 4차 웨이브까지 공개된 상태이나 이 연구에서는 1차 웨이브(2006년) 자료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가장 최근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해당 조사 시점 당시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에 그친다는 한계를 갖는다. 그러나 1차 웨이브 분석은 연구 대상자의 규모 및 비율을 파악하고, 종단 분석의 의의를 판단할 수 있는 기본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변화를 살펴보기에 앞서 기초 작업으로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향후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패널데이터가 갖는 장점을 살려 한부모 가족의 가구구성 전이를 추적하고, 각 전이 시점에서 발생하는 가족생활의 변화를 살펴본다면 가족 구조와 경제적 여건 변화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인과적 해석까지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성별을 제외한 한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서 비롯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의 차이를 함께 보고 있지 못하다. 선행연구들은 사별, 이혼, 별거, 미혼과 같은 혼인 상태, 한부모의 연령 및 교육수준에 따라 경제적 여건에 차이가 나타남을 지적한다. 그러므로 한부모의 가구구성과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경제적 여건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가족의 경제적 여건에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다른 자원이 가구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없었다. 예를 들어 시간적 자원이나 가족원 간의 관계만족도와 같은 심리적 자원은 가족원의 취업유형, 경제적 자원 교환의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물질적 자원이다. 따라서 가구 내 여러 가지 종류의 자원 교류가 가구구성에 따라 달라지는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넷째, 이 연구에서는 3세대 가구의 경제적 자원의 흐름이 부모 세대에서 한부모 세대로 일어나는지, 그 반대인지를 판단할 수 없다. 이 연구에서 3세대를 구성한 한부모 가족의 가구주가 누구인지를 추가적으로 살펴본 결과, 한부모의 부모가 가구주인 경우는 한부모 어머니일 때 약 53%, 한부모 아버지일 때 약 27%로 나타났다. 가구주가 해당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면, 3세대 가구 한부모 어머니의 절반은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는 반면 한부모 아버지의 다수는 부모를 모시고 사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구주 구분만으로는 경제적 자원의 흐름 방향을 단정하기 어렵다.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구원의 소득수준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가구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할 필요가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분석을 수행하지 않았다. 각 가구원 별 소득 파악이 가능하다면 3세대 가구를 형성한 한부모 가족 중에서도 부모의 지원을 받고 있는 유형, 부모를 지원하는 유형, 또는 상호 지원하는 유형 등으로 지원 유형을 세분화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족 구조를 살펴보는 연구를 위해 복지패널과 같은 2차 자료들이 추후 각 가구의 세대구성에 대한 정보를 변수화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고자 한다. 한부모와 양부모 가족의 가구구성을 나누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가구원 ID와 가구주와의 관계 변수를 이용하여 직접 가구의 구조를 파악해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3세대 가구를 구성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와 가구원의 개인적인 특성을 하나씩 연결하여 살펴보아야 했기 때문에 가구구성을 분류하는 작업은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했다. 복지패널에서 제공하는 가구 유형은 단독 가구 기준이기 때문에 3세대 가구 유형은 모두 기타 유형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은 비단 이 연구에서 분석한 복지패널만의 한계는 아니다. 세대 구성에 대한 정보가 변수로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은 가족 구조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부족함을 반영하는 것이며, 2차 자료를 통해 이를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를 제한하는 장애가 될 수 있다.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한부모 가족을 단독가구라는 단일한 대상으로 보지 않고, 한부모 가족의 상당수가 3세대 가구로 살아가고 있음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또한 한부모의 성별과 가구구성별로 한부모 개인 및 가족 특성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가구의 경제적 여건 역시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힘으로써 한부모 가족의 빈곤 및 생활실태를 살펴볼 때 단선적 접근과 해석을 피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다. 한부모 가족 내 다양성과 이에 따른 생활여건 및 정책 욕구 등의 차이를 이해하고 한부모 가족을 지원하는데 이 연구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고순생(2006). 저소득 부자가정 아동양육의 실태와 정책과제. 신라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소영·옥선화(2005). 20, 30대 이혼 남녀의 이혼 후 적응: 이혼 후 생활변화, 개인적 자원, 대인관계 자원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3(3), 199-219.
- 김경신·김오남(1997). 편모가족의 가족자원, 대처와 스트레스. **대한가정학회지**, 35(4), 1-18.
- 김미숙·박민정·이상현·홍석표·조병은·원영희(2000). 저소득 편부모 가족의 생활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은정·진미정(2004). 빈곤 여성가장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및 관련요인 고찰. **가족과 문화**, 16(3), 43-71.
- 문선화(1999). 부자가족에서의 아동의 문제와 복지대책. **한국 아동복지학**, 8, 213-233.
- 박현주·한경혜(2006). 노부모의 지원과 이혼한 성인 자녀의 이혼 후 적응. **한국노년학**, 26(2), 361-380.
- 변화순·송다영·김영란(2001). 가족유형에 따른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신혜령·정재훈·김성경(2006). 한부모가족지원법안에 관한 연구. 여성가족부.
- 엄미선·전동일(2006).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양육부담과 사회적지지. **사회복지리뷰**, 11, 75-108.
- 오승환(2001). 저소득 편부모가족의 가족기능과 자녀의 심리 사회적 특성 비교연구: 양친가족, 편부가족, 편모가족의

-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12**, 77-107.
- 옥선화 · 이재림(2001).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가족생활사건, 사회적 지원, 자녀의 지원과 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8(5)**, 1-15.
- 옥선화 · 성미애(2004). **빈곤 여성가장의 삶**. 서울: 도서출판 하우.
- 옥선화 · 최새은 · 권소영 · 강유진(2004). 이혼한 여성 한부모가족의 사회관계망 지원에 대한 탐색적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1-11.
- 윤성호(2008). 여성가구주의 노동시장 참여와 지위. **한국가족복지학**, **22(4)**, 67-94.
- 윤홍식(2004).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의 소득수준 및 빈곤실태와 공 · 사적소득이전의 역할. **한국사회복지학**, **56(2)**, 5-27.
- 윤홍식 · 김혜영 · 이은주(2005). 절대 및 차상위 빈곤선을 통해 본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지위 결정에 관한 연구: 저소득 여성가구주 가구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1(3)**, 263-293.
- 이성림(2004). 편모가계 여성가장의 취업 및 가계의 경제상태: 양부모 가계와의 비교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169-179.
- 이성림 · 김민정(2001). 여성가구주 가구의 인구학적 동향과 경제적 복지 상태. **소비자학연구**, **12(1)**, 17-30.
- 정현숙(1993). 이혼과 자녀문제의 이론적 고찰. **한국가족학연구회(편)**. **이혼과 가족문제(105-130)**. 서울: 도서출판 하우.
- 조성연(2003). 여성 한부모의 사회적 지원과 자녀양육 방법. **한국생활과학회지**, **12(5)**, 579-593.
- 조성연(2004). 여성 한부모가족의 모-자녀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1-15.
- 조영희(2004). 한부모가족 부 · 모의 생활시간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1-13.
- 진미정 · 김은정(2005). 빈곤 여성가장 가족의 소득구성과 물질적 곤궁 경험. **사회복지연구**, **27**, 163-188.
- 최해경(1997). 사회적 지지망 구조가 편부모 가족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3**, 377-395.
-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www.kostat.co.kr
- 현은민 · 임보래 · 장경문(2006). 한부모 가족의 건강성 관련 특성과 변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4(4)**, 23-38.
- Amato, P.(1987). Family Processes in One-Parent, Step parent, and Intact Families: The Child's Point of 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327-337.
- Angel, R. & Tienda, M.(1982). Determinants of Extended Household Structure: Cultural Pattern or Economic Need?.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7(6)**, 1360-1383.
- Bianchi, S. M.(1994). The Changing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Single Parent Families. In Shirley Hanson(ed.) *Single Parent Families: Diversity, Myths, and Realities(71-98)*. N.Y. : Haworth Press.
- Brown, J. B. & Lichter, D. T.(2004). Poverty, Welfare, and the Livelihood Strategies of Nonmetropolitan Single Mothers. *Rural Sociology*, **69(2)**, 282-301.
- Bumpass L. L., & Raley, R.(1995). Redefining Single-Parent Families: Cohabitation and Changing Family Reality. *Demography*, **32(1)**, 97-109.
- Bumpass, L. L., & Lu, H.(2000). Trends in Cohabitation and Implications for Children's Family Contexts in the United States. *Population Studies*, **54**, 29-41.
- Cohen, P. N.(2002). Extended Households at Work: Living Arrangements and Inequality in Single Mothers' Employment. *Sociological Forum*, **17(3)**, 445-463.
- DeLeire, T. & Kalil, A.(2002). Good Things Come in Threes: Single-Parent Multigenerational Family Structure and Adolescent Adjustment. *Demography*, **39(2)**, 393-413.
- Dunifon, R. & Kowaleski-Jones, L.(2007). The Influence of Grandparents in Single-Mother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9**, 465-481.
- Edin, K., & Lein, L.(1997). Work, Welfare, and Single Mothers' Economic Survival Strateg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2(2)**, 253-266.
- Eggbeen, D. J., Snyder, A. R. & Manning, W. D.(1996). Children in Single-Father Families in Demographic Perspective. *Journal of Family Issues*, **441-465**.
- Figuroa, J. B., and E. Melendez 1993 The Importance of Family Members in Determining the Labor Supply of Puerto-Rican, Black, and White Single Mothers. *Social Science Quarterly*, **74**, 867-883.
- Folk, K. F.(1996). Single Mothers in Various Living Arrangements: Differences in Economic and Time Resources.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55(3)**, 277-292.
- Geronimus, A. T.(1997). Teenage Childbearing and Personal Responsibility: an Alternative view. *Political Science Quarterly*, **112(3)**, 405-430.
- Hao, L. & Brinton, M. C.(1997). Productive Activities and Support Systems of Single Mother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2(5)**, 1305-44.
- Hilton, J. M., & Kopera-Frye, K.(2007). Differences in

- Resources Provided by Grandparents in Single and Married Parent Families.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47(1/2), 33-54.
- Hogan, D. P., Hao, L. & Parish, W. L.(1990). Race, Kin Networks, and Assistance to Mother-Headed Families. *Social Forces*, 68(3), 797-812.
- Horowitz, J. A.(1994). A Conceptualization of Parenting: Examining the Single Parent Family. In Shirley Hanson(ed.) *Single Parent Families: Diversity, Myths, and Realities*(43-70). N.Y. : Haworth Press.
- Kalil, A., Spencer, M. S., Speiker, S. J. & Gilchrist, L. D.(1998). Effects of Grandmother Coresidence and Quality of Family Relationships on Depressive Symptoms in Adolescent Mother. *Family Relations*, 47(4), 433-441.
- Kalil, A., DeLeire, T., Jayakody, R. & Chin, M.,(2001). Living Arrangements of Single-Mother Families: Variations, Transitions, and Child Development Outcomes. Working Paper. Chicago Univ., IL. Irving B. Harris 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 Studies.
- Lino, M.(1994). The Economics of Single Parenthood: Past Research and Future Directions. In Shirley Hanson(ed.) *Single Parent Families: Diversity, Myths, and Realities*(99-114). N.Y. : Haworth Press.
- London R. A.(2000a). The Dynamics of Single Mothers' Living Arrangement.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19, 73-96.
- London R. A.(2000b). The Interaction between Single Mothers' Living Arrangements and Welfare Participation.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19(1), 93-117.
- Michalopoulos, C. & Robins, P. K.(2002). Employment and Child-Care Choices of Single-Parent Families in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5(3), 465-493.
- Moen, P. & Wethington, E.(1992). The Concept of Family Adaptive Strategies. *Annual Reviews of Sociology*, 18, 233-51.
- Parish, W. L., Hao, L. & Hogan, D. P.(1991). Family Support Networks, Welfare, and Work among Young Moth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203-215.
- Snyder, A. R., McLaughlin, D. K., & Findeis, J.(2006). Household Composition and Poverty among Female-headed Households with Children: Differences by Race and Residence. *Rural Sociology*, 71(4), 597-624.
- Stack C. B.(1975). *All Our Kin: Strategies for Survival in a Black Community*. N.Y.: Harper & Row.
- Tienda M., & Angel, R.(1982). Headship and Household Composition among Blacks, Hispanics, and other Whites. *Social Forces*, 61(2), 508-531.
- Tienda, M. & Glass, J.(1985). Household Structure and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Black, Hispanic, and White Mothers. *Demography*, 22, 381-394.
- Trent, K. & Harlan, S. L.(1994). Teenage Mothers in Nuclear and Extended Households: Differences by Marital Status and Race/Ethnicity. *Journal of Family Issues*, 15(2), 309-337.
- U.S. Census Bureau(2008). America's Families and Living Arrangements. www.census.gov
- Weitzman, L. J.(1985). *The Divorce Revolution: The Unexpected Social and Economic Consequences for Women and Children in America*. N.Y.: Free Press.
- White, L.(1992). The Effect of Parental Divorce and Remarriage on Parental Support for Adult Children. *Journal of Family Issues*, 13, 234-250.
- White, L.(1994). Growing up with Single Parents and Stepparents: Long-term Effects on Family Solidar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935-949.
- Winkler(1993). The Living Arrangements of Single Mothers with Dependent Children: An Added Perspective.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52(1), 1-18.

□ 접수일 : 2011년 07월 15일

□ 심사일 : 2011년 07월 27일

□ 게재확정일 : 2011년 09월 16일